

간추린 세계 영화사

초기 영화 시절

1839 루이-작끄-망데 다게르Daguerre, 다게레오타입daguerréotype(포지티브 프로세스) 발견.

1839 윌리엄 헨리 폭스 탈보트Talbot, 네가티브 프로세스 발견. 무한대 포지티브 사진 실현.

1870 머이브리지Muybrige, 빠른 노출 실현. 1872-1877 사이 스탠포드가 투자하려 동시 연결 프레임 현실화. 헐리웃의 원조.

1882 쥘 마레Jules Marris, 카메라 총caméra-fusil 발명(12 프레임/s동작 이미지의 분해에 관심)

1887 한니발 굿윈, 셀룰러이드 롤 필름 발명. 이스트만 커다에서 대량 생산.

1887 에디슨, 포노그래프phonograph 발명, 덕슨에게 카메라 발명 지시

1893 덕슨, 머이브리지와 마레의 발견에 근거하여 카메라와 영사기를 겸하는 기계 개발 (키네토그래프 50 ft 40f/s) 키네토스코프 판매. 파리에서 상영.

1893 뤼미에르, 카메라, 인화기, 영사기를 겸한 시네마토그래프Cinéma- tographe 발명.

1895년 12월 28일 파리 그랑 카페에서 최초의 유료 공개 상영.

1896 에디슨, 바이타스코프 (멜리에스 제작 필름 불법 상영, 뤼미에르 제작사의 촬영 기사들 미국에서 축출 시도)

1896 ~ 1904 영사, 음악, 변사, 사운드 효과 - 최초의 영화 편집. Porter의 작업들

1896 ~ 1905 애니마토그래프, 이중노출, 컬러 현상 (그리피스 이전의 영화)

1896 ~ 1913 멜리에스Méliès 500여편 제작. 이 가운데 「달여행Le Voyage en Lune」의 성공에 힘입어 Star Film 창립. 최초의 판타지 스타일 영화.

1903 포터 「대열차 강도」. 최초의 내러티브 필름.

유럽 영화의 산업화 시기

— 1896~1910년대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까지

파테Pathé : 1896년 설립. 스페인, 영국, 러시아, 미국에 지사 설립. 멜리에스 영화 배급도 병행. **고몽Gaumont**(1895)과 아울러 멜리에스의 수공업적 영화 제작에 종말을 가함.

미국 : 200여개의 니클로우디언Nickelaudian(싸구려 극장) 성공에 힘입어, 에디슨의 바이오그래프, 바이타그래프, 프렌치 스타 필름 등이 모여 MPPC 설립(1908).

무성 영화 시기 1910~1927

멀티플 릴 필름(feature)의 성장 시대(1 릴,한 권, 1000피트, 오아시스는 2000자 한 권 짜리 7권으로 구성). 연극 극장과 유사한 시각을 지닌 극장 발전. 니클로디언 소멸. 스타 시스템 발전(사라 베르나르). 로스앤젤레스 교외의 작은 공업 도시 헐리우드가 영화의 메카로 등장. 이전의 스탠포드경의 투자가 큰 몫을 함.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 영화

고몽의 막스 린더, 채플린의 전범을 세움. 범죄 영화, 판토마 시리즈.
필름다르 영화사, 「필름다르」(film d'art 예술영화)로 명명된 영화 시리즈 제작.
이탈리아 영화, 시대극(역사물)이 주류를 이룸.
미국의 그리피스, 편집 기법의 영화 확립.

제1차대전 이후의 유럽 영화

주로 덴마크에서 수입된 영화를 보는 대중들 대부분은 무학 내지 실업자. 바이마르 제국 당시(1919~1933) 유럽 최대의 영화사 UFA가 독일 영화의 질을 향상시킴. 에른스트 루비치 『마담 뒤바리』(1919), 『안나 볼레인』(1920). 그러나 무엇보다 표현주의 작품 『칼리 가리 박사의 밀실』(1919)이 이 시대의 영화사를 장식. 프리츠 랑의 『메트로폴리스』(1926). 무르나우의 『노스페라투』(1922). 미국 골드윈마이어나사로 이적. 히틀러 시절 재입국. 이후 신객관성the new objectivity 경향으로 선회. 히틀러의 제3제국 시절에는 괴벨스의 억압하에 관제 영화로 바뀜.

러시아

독일과 프랑스로부터 자재를 구입, 1908년 이후 약 20여편 제작. 1914년 이후 전쟁으로 영화 수입 제한. 볼셰비키 정권(1917) 이후 인민교육부 산하 영화 위원회 설립, 크루프스카야Krupuskaya에게 소비에트 최고 예술로서의 영화 사업 일임. 열악한 제작 여건에도 「연방 영화학교」에서 인재 육성. 사회주의자 쿨레쇼프가 자본주의 영화인 그리피스의 『불관용 Intolerance』을 영화 교재로 삼음. 저명한 쿨레쇼프 효과 이론. 푸도브킨의 『어머니』.

에이젠슈타인의 지적 몽타주, 변증법적 몽타주를 스탈린은 형식주의로 몰아 세움. 『스트라이크』(1924), 『전함 포츨킨』(1925), 『10월1928』

푸도프킨은 인식의 연결에 비중을 두는 몽타주 연구. 훌륭한 감수성과 서정성에도 불구하고 고리키 원작의 『어머니』(1926)는 그 과도한 이념성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비난 받기도 함.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 영화

제1차세계대전 이후 국익 증대와 함께 영화 산업 성장. Ince의 투자로 스튜디오 시스템 확립. 1920년대초부터 약 4천만 미국인이 매일 새 영화의 개봉을 고대.

채플린 이전 맥 세넷의 키스톤 영화들 : 슬랩스틱 코미디 『키드 The Kid』(1921)

1922 MPPDA 설립.

그리피스, 채플린, 페어뱅크스, 매리 픽포드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코퍼레이션 설립. 『파리의 여인』(1923), 『골드 러쉬』(1925), 『서커스』(1928), 『시티 라이트』(1931), 『모던 타임스』(1936)

『장군』의 버스터 키튼. 『로렐과 하디』의 로이드. 루비치, 에릭 본 슈트로하임, 플라허티, 데 밀 등의 영화가 흥행과 작품성에서 성공. The Hay's Office와 MGM등의 영화사가 발전하며 독립 영화의 몰락을 가져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성 시대

초기 시절 에디슨의 업적 kinethophone, 고몽의 chronophone, 햅워스의 vibraphone 등으로 동시 녹음 쇼트 개발.

리 데 포리스트가 1907년 녹음된 쇼트를 완성한 이후 1923~27 사이에 대중 공개 성공. 1000개 이상의 유성 쇼트 제작. 그러나 상업적인 성공을 기대한 것은 아님. 당시 에이젠슈타인, 채플린마저도 영화의 유성화에 반대. 가장 큰 문제는 녹음된 소리를 다시 재생하는 것. 그래서 후시 녹음으로 감. 앨런 크로스랜드 『재즈 싱어』(1927), 킹 비도가 『할렐루야』(1929) 하나의 시퀀스를 유성화. 루비치, 르네 클레르의 『파리의 지붕밑』(1930) 제작.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소비에트 감독들의 수직 몽타주 성립. 이후 필름의 색채화 작업도 병행. 윌리엄 웰만 『공공의 적 *Public Enemy*』(1930)

시스템

메이저 시스템 : 메트로골드윈마이어, 워너 브러더즈, 20세기폭스, 콜럼비아, RKO 라디오(『킹콩』[1933], 『시민 케인』[1941], 디즈니 배급), 유니버설, MGM, 파라마운트., B급 영화사(저예산영화), 리퍼블릭, 모노그램, 그랜드 내셔널. 존 웨인 배출. 프로덕션 코드, 카톨릭에 의한 폭력 장면 완화 조치.

유럽 영화

영국 : RCA가 유럽에 장비 설치, 언어 장벽의 염려가 없는 영국이 우선 수혜국. 플라허티(『북국의 나누크』, 『아란의 사나이』), **히치콕**.

프랑스 : 제1차 대전의 여파로 대형 제작사 체제에서 독립 영화사 체제로 탈바꿈. **강스, 비고, 르누와르** 등이 사운드 도입.

독일 : 스텐버그, 파브스트, 프리츠 랑, 이후 괴벨스 체제로. 이탈리아도 유사한 과정.

소련 : **콜레쇼브, 푸도프킨, 에이젠슈타인**

일본 : 1932년 무렵까지도 대개 무성 영화. 1937년까지 유지. 그 이유는 변사와 카부키의 영향력. 유성 영화가 도래하면서 변사의 거센 항의 불구 영화의 지대한 발전 이룸. **오즈, 미조구찌**.

인디아 : 사운드의 도래로 영화 산업 발전.

결국 영화의 성공은 **사운드 도입**에 매료된 대중들로부터의 열광적 호응에 힘입은 바 크다.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의 경향

미국 : 헐리웃 시스템과 애국심을 이용한 정부와의 결합으로 전성기를 누리던 영화사 체제는 전후 다소 합리적인 체제로 안정되어 가면서 산업으로서의 영화 자체의 힘을 발휘해감. 국민 2/3가 일주일에 한 번 영화 관람. 그러나 곧 공황 발생. 1948년 영화사들 어려운 상황에 빠짐. 이후 40년대 말-50년대 초 이른바 매카시즘 선풍, 공산주의 성향의 지식인과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수 백 명의 영화인들이 영화계 떠남. 이후 TV의 영향으로 영화계 타격 받자 시네마스코프(1:2.35) 등 화면 비율 바꾸며 자구책 마련해 감(현재 와이드 화면16:9).

이탈리아 : 대전으로 유럽, 소련 일본 등의 영화 기반 시설 파괴. 그러나 무솔리니의 조기 항복에 힘입어 이탈리아는 자신의 기반 시설을 그대로 남길 수 있어 영화 부흥에 유리한 조건. 이렇게 하여 **네오 리얼리즘**이 탄생. 네오리얼리즘의 뿌리는 소련의 소비에트 **표현주의 리얼리즘**과 프랑스의 **시적 리얼리즘**에 두고 있음. 네오리얼리즘은 그 주제에

있어 철저히 이탈리아적인 색깔 즉 황폐화 된 일상 생활의 사실성에 근거를 둠(마르크시즘). 감독들은 무솔리니가 세운 영화학교 <센트로 스페리멘탈레>에서 교육을 받지만 그 이데올로기를 거부한 감독들, 그 중 루키노 비스콘티의 『강박관념』(1942), 로셀리니의 『무방비도시』(1945) 등이 반파시즘을 극화한 것. 데 시카의 『자전거 도둑』(1948).

영국의 소설 리얼리즘, 브라질의 시네마 노보, 프랑스와 체코의 누벨바그Nouvelle Vague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그러나 미국의 마샬 플랜 실시와 함께 사라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영화사에 큰 족적을 남김. 페데리코 펠리니, 로셀리니의 스크립라이터로서 네오 리어리즘의 대를 이음, 『라 스트라다』(1954), 『라 돌체 비타』(1960), 『8과 1/2』(1963), 『펠리니 사티리콘』(1969), 『펠리니 로마』(1969). 로셀리니의 또 다른 제자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에클립스』(1962), 『붉은 사막』(1964), 『블로우 업(옥망)』(1968). 또한 기독교 마르크시스트인 파솔리니는 펠리니의 스크립라이터로 출발 『마태복음』(1964), 『테오렘』(1965), 『메테』(1969), 『살로』(1975). 이와 같은 성향의 그 제자 벨르톨루치의 『과리에서의 마지막 탱고』(1972), 이외에 로지, 타비아니 형제.

프랑스 : 록토, 브레송, 타티, 오웰스의 전통을 계승한 누벨바그 세대의 도래. 작가 영화. 누벨바그의 영향 : 헐리웃 시스템의 해체. 영국, 서독, 미국 감독들에게 영향을 주어 제2 누벨바그, 제3누벨바그 세대 형성.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일본, 한국(하길중, 정지영 등 프랑스 문화관에서 프랑스 영화를 감상하던 세대들).

영국 : 제2차대전후 주된 경향은 문학 작품 각색. 누벨바그 비판의 대상. 로렌스 올리비에 『햄릿』(1948)등 기성 영화인들에 항거한 뉴 프리 시네마 운동의 기수 린제이 앤더슨 *IK*(1968)(『400번의 구타』, 『죽은 시인의 사회』와는 차원이 다른 『품행제로Zero de conduite』[1933]에 대한 오마주) 등 누벨바그 영향으로 ‘사회적 사실주의’ 혹은 ‘뉴 시네마’ 영화 운동으로 발전. 리차드슨 『꿀맛』(1961), 슬레징어 『빌리 라이어』(1963), 이 영화들이 영국 영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임. 앤더슨의 『톰 존스』(1963), 리차드 레스터 *A hard day's night*(1964), *Help!*(1965) 등...80년에 들어선 영국 영화는 닐 조단 *The company of wolves*(1984), 테리 길리엄 『브라질』(1985) 등 유일하게 개인 영화 제작이 가능한 나라로 인식됨.

독일 : 나치 몰락 이후 폐허 속에서도 발전을 이룬 독일은 세계영화 5대강국의 면모를 보여준 예술가들의 나라. 1962년 오버하우젠 영화제에서 독일 영화의 죽음을 선고하고 “young german cinema”를 요구하며 “New German Cinema” 출발시킴. 이후 “Young German Film Board”로 발전. 그 기수들은 주로 누벨바그 감독 특히 고다르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특히 슐렌도르프(『마리아 브라운의 결혼』[1982]), 파스빈더(『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공포가 영혼을 먹어치우다)』[1973]), 허조그(『아귀레』[1972], 『노스페라투』 리메이크[1979]), 빔 벤더스(『과리 텍사스』, 『토쿄街』)

소비에트 : 스탈린 체제 붕괴 이후 많은 작품들이 연방국들의 작가들에 의해 발표됨. 특히 파라자노프 『잊혀진 선조들의 그림자』(1964), 타르코프스키(『이반의 어린 시절』[1962], 『안드레이 루블료프』[1966], 『술라리스』[1971], 『거울』[1977, 『스토커』[1979], 『희생』[1986]) 1970년대로 들어서면 다시 리얼리즘이 강조되어 주로 문학 작품의 각색에 의존한 작업이 이루어짐.

폴란드 : 로만 폴란스키(『물속의 칼』[1962]), 와이다(『재와 다이아몬드』[1958], 『강철 인간』[1981]), 키에슬로브스키(『십계』 특히 「간음하지 마라」의 극장판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을 추천함)

체코의 누벨바그(1962~1968) : 밀로스 포만(『소방수의 꿈』[1967])

헝가리 : 미클로스 얀초(『적과 백』[1967], 『붉은 시편』[1972]), 자보(『메피스토』[1981])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은 2차 대전까지 독자적 영화 세계를 이루지 못하

고 있었으나 유고의 경우 좋은 교육 시설 투자로 국제무대에 등극함.

제3세계 : 쿠바가 국책 영화를 위해 투자, 브라질의 로타(『성난 대지』[1967]), 루이 게레라 (『총』[1963]), 볼리비아의 산지니스 『콘돌의 피』(1969), 『공공의 적』, 칠레의 미구엘 리틴 『약속의 땅』(1973), 아랍과 알제리 등에서도 반제국주의 저항 영화 등장.

스페인과 멕시코 : 뷔뇌엘의 작업에 힘입어 발전. 『부르주아의 은밀한 매력』(1973), 『육망의 모호한 대상』.

스웨덴 : 잉그마르 베르히만 『제7의봉인』(1956), 『들딸기』(1957), 『침묵』(1973, 3부작), 『페르소나』(1966), 『과니와 알렉산더』(1984).

이후 미국 영화의 경향

1960년대의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영화계에도 많은 변화 일어남. 아서 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1967), 큐브릭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1968), 페킨퍼 『와일드 번치』(1969), 웨슬러 『미디엄 쿨』(1969), 데니스 호퍼 『이지 라이더』, 알트만 『매쉬』(1970), 코폴라 『대부』(1972), 스피버그 『쥬스』(1975), 루카스 『스타워즈』(1977) 등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작품이 계속 선을 보임.

영화 입문 기행

구로자와 아키라 : 『라쇼몽』, 『가게무샤』, 『이끼루』, 『산주로』

리들리 스콧 : 『블레이드 러너』

파스빈더 :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 『욕망』

스탠리 큐브릭 :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배리 린든』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 『안드레이 류블로프』, 『희생』, 『거울』
『잠입자』, 『솔라리스』

잉그마르 베르히만 : 『들딸기』, 『제7의 봉인』, 『침묵』

피에로 파올로 파졸리니 : 『테오렘』

페테리코 펠리니 : 『길 *La Strada*』, 『8 1/2』,

크쉬쥐토프 키에슬로브스키 :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김영빈 : 『나에게 오라』, 『김의 전쟁』

송해성 : 『파이란』

오즈 야스지로 : 『동경 이야기』, 『만추』

찰리 채플린 : 『라임라이트』, 『키드』

에드워드 즈빅 : 『가을의 전설』,

조나단 템 : 『양들의 침묵』,

데이빗 린 : 『지바고』

오슨 웰즈 : 『시티즌 케인』,

루키노 비스콘티 : 『베니스의 죽음』,

클로드 베리 : 『마농의 샘』,

베르톨트 베르톨루치 : 『1900』,

스탠리 크레이머 : 『초대받지 않은 손님』

『죽은 시인의 사회』

얀 슈반크마이어의 불가사의한 세계 시리즈(DVD)

윌리엄 와일러 : 『벤허』

쥘리 스티븐스 : 『자이언트』

엘리아 카잔 : 『에덴의 동쪽』

영화의 이해를 돕는 서적

- 소포클레스 : 『오디푸스 왕』
보들레에르 : 『악의 꽃』, 『파리의 우울』
랭보 : 『지옥에서 보낸 한 철』
메리메 : 『카르멘』
니체 : 『비극적 사유의 탄생』
알랭 로브그리에 : 『지난 해 마리앵바드에서』
마르셀 빠놀 : 『내 아버지의 영광』, 『우리 엄마의 성』
톨스토이 : 『전쟁과 평화』
도스토예프스키 : 『죄와 벌』
에드가 알란 포 : 『에드가 알란 포 단편집』
바타이유 : 『에로티즘』, 『문학과 악』
더들리 앤드류 : 『현대영화이론』(한길사)
장 코레 외 : 『영화학입문』(영화진흥공사)
에이젠슈타인 : *The Film Sense* (A Harvest/HJB Book)
아이언 카메룬 : *The Films of Robert Bresson* (스튜디오 비스타)
로베르 브레송 : 『시네마토그래프에 관한 노트』(갈리마르)
데이빗 보드웰-크리스틴 톰슨 : 『영화예술』(이론과 실천)
앙리 아젤 : 『영상미학』(다보문화)
레이몬드 스포티스우드 : 『영화의 문법』(영화진흥공사)
마르크 페로 : 『역사와 영화』(까치)
야마다 가즈오 : 『영화가 시대를 말한다』(한울)
버나드 딕 : 『영화의 해부』(시각과 언어)
『로베르 브레송의 영화 세계』(한겨레)
F. R. 달론느 : 『영화와 빛』(민음사)
보몬트 뉴웰 : 『잠상』(해뜨)

영화의 기법 이해에 도움이 되는 영화 용어들

frame : 카메라와 영사기에 의해 정해지는 이미지의 틀. 구도. 영화의 mis-en-scène은 이것으로 실행됨. 프랑스 미술의 전통을 이은 프랑스 영화인들의 영화 언어. 반대로 에이젠슈테인 비롯한 소련 감독들은 편집montage에 집착함.

shot : 촬영상의 최소 단위 길이 및 크기와 각도(하나의 문장 혹은 명사절)

close up, close shut : 초상화 정도의 화면

medium shot : 바스트사이즈샷, 미디엄샷, 반신 혹은 7부신

long shot : 롱샷,全景이 나오는 배우의 전신. 혹은 풍경을 담은 화면

scene : 일관성있는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shots의 집합.(하나의 문단 혹은 시의 행)

sequence : scene들이 이루는 하나의 집합(연극의 막 혹은 시의 절, 소설의 장)

plan-séquence(one scene-one shot): 시퀀스샷. 복잡한 카메라의 움직임이 필요한 경우 싱글 테이크로 잡은 화면. take는 카메라로 장면을 잡는다는 뜻(prise). 하나의 샷은 다수의 테이크 가운데 선택된 것.

high angle shot : 부감(俯瞰)촬영(카메라가 내려다보며 찍음).

low angle shot : 양각(仰角)촬영(카메라가 올려다보며 찍음).

pan shot : 고정된 카메라의 수평 움직임(cf. tilt shot : 수직 움직임) reel

cut découpage : 편집상의 최소 단위, 한 샷이 2컷으로 나뉠 수 있음.(단순 컷, 대조 컷, 평행 컷, 점프 컷). 일반적으로 fade, dissolve, wipe, iris로 컷을 연결.

continuity(découpage technique, continuité) : 시나리오의 신을 쇼트로 나누고, 연기 대사, 화면 사이즈, 앵글, 카메라워크, 음향, 화면 연결들을 표기. 그림으로도 작성.

*전체 시나리오 : 100-200신, 20-30개 내외의 시퀀스가 모여 시나리오.

monter